

## 후쿠시마 11주기 YWCA 캠페인을 여는 기도문

생명의 바람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여성으로 부름 받아 주의 일에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실천을 예배로 받아주소서.

이 시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기억하며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폭자들과  
후쿠시마의 못 생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원전 사고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무섭게 번지는 산불로 마음 졸였던 강원과 울진의 핵발전소 지역,  
경주, 부산, 영광, 영덕에서  
대도시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설치된 송전탑 지역의 아픔과 안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안전과 생명을 짓밟고  
헛된 꿈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주소서.

올바른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하사  
이기주의를 벗어버리고 지금 고통받는 자들과 연대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향후 5년이 죽음의 세상이 아닌  
정의 평화 생명의 길로 향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소서.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정의의 발걸음을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 나갈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